

# 朝鮮人の 他者認識

— 朝鮮時代 海洋關聯 記錄 속의 外國 이미지를 중심으로\*

金 敏 鎬\*\*

## 〈 目 次 〉

1. 들어가며
2. 朝鮮時代 海洋關聯 記錄 概略
3. 中國, 臺灣 이미지
4. 日本, 琉球 이미지
5. 其他地域 이미지
6. 나가며

## 1. 들어가며

최근 중국의 지역 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燕行錄을 주의 깊게 읽게 되었다. 燕京을 비롯하여 朝鮮과 燕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지역 이미지가 연행록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연행록을 읽다보니 陸路가 아닌 海路를 이용한 燕行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일한 노선만을 왕복하는 陸路 燕行錄들에 조금씩 흥미가 사라지고 있을 무렵 읽게 된 海路를 이용한 燕行錄은 내게 새로운 읽는 재미를 안겨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211-00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아울러 이 논문은 2013년 5월 10일 홍콩 城市大學에서 개최한 海外漢籍與中國文學研究 國際學術研討會에서 발표한 〈朝鮮人的他者認識 - 朝鮮時期有關海洋記錄裏的外國形象〉을 수정, 번역한 것임.

\*\* 翰林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주었다. 뿐만 아니라 陸路 燕行錄에서는 볼 수 없었던 山東 地域 등의 이미지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漂海錄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잘 알려진 崔溥의 《漂海錄》을 비롯하여, 張漢喆, 李邦翼 등의 《漂海錄》을 읽으며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이 아닌 대만, 중국 강남 지역 등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日本을 방문한 朝鮮通信使들의 기록인 《海行摠載》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日本으로 漂流한 다양한 기록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조선시대 해외를 배경으로 한 趙緯韓의 《崔陟傳》과 같은 소설에까지 관심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조선시대 해양관련 기록들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시대 해양관련 기록들에 보이는 외국 이미지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연행록, 표해록 등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 상황을 살펴 본 연구들은 적지 않다.<sup>1)</sup> 그러나 해로연행록, 표해록, 통신사 기록, 해양 관련 문학을 모두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외국 이미지를 살펴 본 논문은 아직 없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양을 통해 조선인이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정리, 고찰해 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水路 연행록의 대표작이라 할만한 洪翼漢의 《朝天航海錄》과 같은 海路 燕行錄, 표해록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崔溥의 《漂海錄》 및 張漢喆의 《표해록》, 朝鮮通信使의 기록들, 일본으로 표류한 기록 등 海洋 관련 기록들 및 조선 소설로는 드물게도 중국, 일본, 베트남에까지 지역적 배경을 두고 있는 趙緯韓의 《崔陟傳》을 통해 당시 朝鮮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행록, 표해록 관련 수많은 논문 중 해양과 관련된 논문으로 임기중의 〈水路燕行錄과 水路燕行圖〉(《한국어문학연구》 제43집 2004. 8.)을 들 수 있다. 임기중 교수는 이 논문에서 바다를 통해 중국에 갔던 27건의 연행록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洪性鳩는 〈두 外國人의 눈에 비친 15·16 세기의 中國: 崔溥《漂海錄》과 策彦《人明記》의 比較〉(《명청사연구》 24, 명청사학회, 2005.)에서 1488년 중국에 표류한 조선 관리 崔溥의 기록인 표해록과 1539년 입명 사신의 자격으로 명나라 영과부에 도착한 일본의 외교승 策彦周良의 중국 인식을 비교 연구하고 있으며, 이경엽은 그의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漁父歌·漂海錄·漁撈謠를 중심으로〉(《도서문화》 2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2. 8.)에서 표해록 등을 활용하여 당시 사람들의 해양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신정호는 〈한중 해양문학 비교 연구 서설 - 試論적 접근〉(《도서문화》 제40집, 2012. 12.)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 문학에 대한 비교 문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손승철과 박찬기의 〈외교적 관점에서 본 조선통신사, 그 기록의 허와 실〉(《한국문학과예술》 제2집, 2008. 9.)에서는 외교사의 측면에서 각 사행이 처한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았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행록, 표해록, 조선통신사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

## 2. 朝鮮時代 海洋關聯 記錄 概略

조선시대는 海禁政策과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 바다로 뺏어나가는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격적으로 바다를 소재로 하는 소설이나 散文은 많지 않다. 다만 바닷가나 濟州島 같은 섬에는 바다가 그 삶의 터전이기때문에 바다와 관련한 산문, 詩歌 같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존재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 간의 교류의 기록으로 그러한 문헌의 기초 위에 관련 있는 조선시대 소설도 언급해 보려 한다.

바다를 통해 외국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明末 북쪽 陸路의 봉쇄로 인해 바다를 이용해 中國으로 燕行을 나갔던 海路 燕行錄, 日本에 通信使로 갔던 朝鮮通信使들의 記錄, 中國, 日本은 물론 멀리 臺灣, 琉球, 越南까지 다녀온 漂流의 기록들인 漂海錄이 그것이다.

우선 해로를 활용한 연행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洪翼漢의 《朝天航海錄》(1624)이 있다. 당시 연행사들은 淸軍의 점령지가 된 遼東의 육로를 피하여 바다를 이용, 定州 宣沙浦에서 출발하여 椴島에 들러 명나라 都督 毛文龍과 회담하고 다시 廣鹿島·長山島 등지를 경유하여 登州에 상륙한 다음, 濟南을 거쳐 北京에 들어가 임무를 마치고 이듬해 4월에 귀국한다. 당시 使行 임무는 仁祖 즉위에 대한 誥命과 冕服을 주청하는 일이었으며, 일행에는 正使 李德沔, 副使 吳翻 등 40명이었다.

중국 漂流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朝鮮 成宗 시기 제주도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 浙江省 寧波府에 도착해 運河를 따라 杭州, 山東, 北京 및 遼東지역을 거쳐 귀국한 6개월간의 상황을 일기체로 기록한 崔溥의 《漂海錄》(1488)이 있다. 그리고 1770년 進士 試驗을 보러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표류하여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물에 도달한 경험을 기록한 張漢喆의 《표해록》(1771)도 있다. 또 正祖 때 부친인 五衛將 李光彬을 만나고자 제주도에서 서울로 휴가를 떠났던 武人 李邦翼은 멀리 臺灣 澎湖島까지 漂流하게 된다. 그는 臺灣, 福建, 江南, 山東, 北京 등을 거쳐 귀국하게 되는데, 정조는 그의 표류 상황을 燕巖 朴趾源에게 정리하게 하고, 박지원은 〈書李邦翼事〉(1797)란 글로 이방익의 표류 상황을 정리해 正祖에게 바친다. 이와는 별도로 李邦翼은 한글 歌辭로 〈漂海歌〉를 지어 자신의 표류 상황을 읊기도 하였다.

중국으로의 연행과 표류의 기록들도 있지만 일본과 관련된 기록들도 적지 않다.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朝鮮通信使의 기록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壬辰倭亂 이전 기록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成宗 2년(1471) 王命을 받들어 日本 本國, 一岐, 九州, 對馬島 및 琉球 등 國家의

상황을 정리한 申叔舟의 《海東諸國記》(1471)를 들 수 있다. 또 壬辰倭亂 시기의 기록으로는 丁酉再亂 때 日本에 잡혀가 온갖 수모를 겪다가 1600년 귀국하면서 일본의 사회 제도와 생활상을 자세하게 기술한 姜沆의 《看羊錄》(1656)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肅宗 37년(1711) 朝鮮通信使의 押物通事였던 金顯門의 《東槎錄》(1711)과 肅宗 45년(1719) 申維翰의 《海遊錄》(1719)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 표류한 것을 기록한 표해록으로 일본의 다양한 사회상을 볼 수 있는 楓溪 賢正의 《日本漂海錄》(1821)을 들 수 있다. 풍계 현정은 海南 大菴寺 翫虎 倫佑의 요청으로 경주 佛石山에 가서 千佛을 조성한 후 완성된 불상을 배에 싣고 가다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 태풍을 만나게 된다. 그의 배는 長崎島에 표류하여 약 7개월 동안 일본에서 머물다 조선으로 돌아온다. 이 책은 길이가 길지는 않으나 현정을 비롯한 27인이 일본에서 겪었던 일과 일본의 풍습 등이 흥미 있게 기록된 표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책으로 鄭運經이 엮은 《耽羅聞見錄》을 들 수 있다. 1731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鄭必寧을 따라 제주도로 온 그는 이곳 백성들 중 외국에 표류를 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엮은 책이 바로 《耽羅聞見錄》이다. 여기에는 安南國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濟州島民 高尚英의 표류기 등 15 종류의 臺灣, 日本, 琉球 등 지역의 표류기를 수록하고 있는데 다양한 民草들이 겪은 외국 이미지를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趙緯韓의 《崔陟傳》은 일명 《奇遇錄》이라고도 하는데 壬辰倭亂으로 인해 가족이 離散된 상황을 조선, 일본, 중국, 그리고 安南까지 배경으로 삼은 작품으로 한국 고소설에서 보기 드물게 공간무대가 넓은 작품이다. 《최척전》의 저자 조위한(1567-1649)은 청년 시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南原으로 내려와 피란살이를 하였다. 남원에서 피란을 하던 중 잠시 金德齡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 왜적을 물리치는 일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 사람들과 교류도 하였다. 이 때 명나라 사람과 중국의 명승지인 江浙, 蘇杭 지역을 여행하고자 약속을 하고 떠나려다 형 維韓의 만류로 포기하였다. 그는 또 光海 君 2년(1610) 8월 禮部郎中으로 재직하던 중 謝恩使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다음 해 3월 귀국하였다. 그는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南原 周浦로 隱居하였는데 이 때 지은 것이 《최척전》이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다시 官界로 나아갔고, 60세 되던 때에는 製述官으로 뽑혀 명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최척전》에 나오는 지리 상황들은 상상 속의 지리가 아니라 임진왜란, 중국 燕行 및 明軍과의 교류 등을 통한 현실 경험에 바탕을 둔 지리였다.<sup>2)</sup>

2) 《崔陟傳》과 관련된 사항은 金敏鎬의 〈韓國古小說裏의 中國 -以趙緯韓의《崔陟傳》爲中心〉(《明清小說研究》第3期 總第105期, 中國江蘇省社會科學院 編, 2012.)을 참고할 것.

조선시대에만 조선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sup>3)</sup> 대부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표류였기에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몇몇 기록들만으로도 다양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바다를 통해 외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그 지역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中國, 臺灣 이미지

조선 시기 해양 관련 기록 속에 보이는 중국 이미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중국의 풍요로움, 변화함 등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楓溪 賢正의 《日本漂海錄》을 통해 단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당선은 매우 높고 컸다. …… 그 서 있는 것이 마치 큰 산악 같아서 비록 풍량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았다. 배가 나아갈 때 역풍이 불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을 때에도 닻을 내려 배를 멈추었다. 배가 이와 같았으므로 해마다 일본에 들어와도 전복하거나 가라앉을 걱정이 없었다. 흥원선도 작은 배가 아니어서 돛대의 길이가 14와 쯤 된다. 그런데 시험 삼아 흥원선을 끌어다가 당선 옆에 두었더니 흥원선의 돛대 머리가 겨우 중국배의 중간쯤에 이르렀으니 그 배의 높고 크기가 이 정도였다. 그 배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고 물었더니 은 2천 냥쯤 된다 하고, 당선은 왕래할 적에 반드시 길흉을 점치고 날짜를 택한 후에 비로소 배를 띄우는데 점을 치고 지불하는 비용이 천 냥이라고 하니, 사실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답이 이와 같았다.<sup>4)</sup>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日本 長崎에 정박되어 있는 중국 배를 통해 중국의 巨大함과 富裕함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이 타고 왔던 朝鮮의 洪原船과 중국 배와의 비교를 통해 상징적으로 거대한 중국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韓日關係史學會 編, 《韓日漂流民研究》(2001: 195-249)에 韓日漂流民의 연표가 있다.

4) “唐船甚高大. ……船即止而立, 若山岳, 雖有風浪, 不能搖動. 行船時, 或有逆風, 無以行舟, 亦不碇止舟. 其舟如此故, 年年入日本, 而無覆溺之患. 洪原船亦非小船, 帆竿長十四把矣. 試以此船, 曳置唐船之側, 則洪原船帆竿之頭, 僅至唐船之腹, 其船之高大如此. 問其造船之價, 銀爲二千兩許. 唐船往來時, 必卜休咎, 又擇日始發船, 而卜價給錢千兩云. 其事虛失, 雖未知, 其言則如此.” 楓溪 賢正, 《日本漂海錄》(2010: 51-52).

### 3.1 北京 이미지

이처럼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 힘과 부유한 이미지가 지배적이지만 시대 및 상황, 지역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양을 통해 북경에 도착했던 기록 속에 보이는 북경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燕行錄에 보이는 북경 이미지<sup>5)</sup>와 달리 부정적인 것이 많이 보인다. 특히 江南 지역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였던 漂流民들에게 북경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우선 崔溥의 《漂海錄》에 보이는 북경 이미지는 다음처럼 부정적이다.

북경은 곧 虞나라 幽州의 땅인데, 周나라가 燕·薊의 分界로 삼았습니다. 北魏 이후로 오랑캐의 풍속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遼나라 때는 남경이 되고, 金나라 때는 中都가 되고, 元나라 때도 또한 大都가 되어, 夷狄의 君主가 서로 잇따라 도읍을 세웠으니, 그 民風과 土俗은 모두 오랑캐의 풍속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명나라가 옛날의 더러운 풍속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오랑캐 의복이 유행하던 地區로 하여금 中華의 제도가 습속이 되도록 했으니, 朝廷 文物의 성대함에는 불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閭閻의 사이에서는 道教와 佛敎를 숭상하고 儒學은 숭상하지 않으며, 상업만 직업으로 삼고 농사는 직업으로 삼지 않으며, 의복은 짧고 좁아 남녀 모두 제도가 같았으며, 음식은 누린내 나는 것을 먹고 尊卑가 그릇을 같이 하여, 오랑캐의 남은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본 바에 의하면, 그 산은 草木이 아주 없고, 그 냇물은 더럽고, 그 땅은 모래 섞인 흙이 날려 일어나서 먼지가 하늘까지 가득 차고, 五穀은 풍성하지도 않으며, 그 사이에 人物의 많음과 樓臺의 웅장함과 市肆의 많은 것은 아마도 蘇州와 杭州에 미치지 못할 듯하였으며, 그 성안의 需用品은 모두 남경과 소주, 항주로부터 왔습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신 등을 표류해 온 외국인으로 인정하여 문 지키는 館夫 劉顯 등을 시켜 신 등을 감시하게 하였는데, 上司의 사유를 밝힌 지령문서(明文稟帖)를 받들어 呼喚하는 것이 아니면 마음대로 客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놓아주기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흥정꾼(牙行) 및 戶籍 없는 무리들이 객관에 들어와서 친숙하게 交通하려는 까닭으로 유현은 엄중히 防護制止(防護制止)를 가하고, 또 역관이 없으므로 곧 장님과 귀머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무릇 조정 일을 들어 알 길이 없었습니다.<sup>6)</sup>

5) 연행록에 보이는 북경 이미지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金敏鎬의 〈燕行錄에 보이는 北京 이미지 연구〉(《中國語文學誌》第32輯, 中國語文學會 編, 2010年4月)을 참고할 것.

6) “北京, 卽虞之幽州之地, 周爲燕薊之分, 自後魏以來, 習成胡俗, 厥後遼爲南京, 金爲中都, 元亦爲大

이처럼 강남의 화려함을 경험하였던 崔溥에게 있어 북경이 비록 황제가 살고 있는 정치의 중심지이긴 하나 아직도 “오랑캐의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고, “人物의 많음과 樓臺의 웅장함과 市肆의 많은 것은 아마도 蘇州와 杭州에 미치지 못”하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뒤떨어진 곳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명말청초의 혼란 상황에 바닷길을 거쳐 燕京을 방문하였던 洪翼漢 역시 그의 《朝天航海錄》(1624)에서 북경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늘어놓고 있다. 홍익한은 명말의 혼란상을 보면서 중국 관리들의 부패상과 부조리함을 한탄하고 있다.

제독 李其紀가 주객사 낭중 周鏞과 廓然亭에서 술을 마시매, 館夫들이 다투어 조소하기를, “清白學士끼리 대작하는 것이 불만하다.” 하였으니, 대개 그 탐욕을 기롱하는 것이었다. 西館牌子 劉紳이 그 형을 죽인 죄로 刑部에 잡혀 가매, 館人들이 서로 하례하였는데, 마침내 뇌물을 바치고 형벌을 모면했으니, 아! 애석하다! 중국의 정사가 이다지도 부패했던 말인가?7)

洪翼漢의 경우 仁祖反正 이후 명나라에 인조 등극을 허락받기 위하여 간 상황이고, 당시 遼東 지역에는 後金이 있어 陸路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북경으로 가게 된다. 상황이 그래서인지 온통 내용은 궁중과 관련된 이야기뿐이고 일반 서민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관리들의 부패상을 통해 당시 북경으로 대표되는 명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澎湖島까지 표류하였다가 복건성과 강남 지역을 거쳐 북경을 경유한 李邦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한글 歌辭인 〈漂海歌〉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都, 夷狄之君, 相繼建都. 其民風土俗, 皆襲胡風. 今大明一洗舊染之污, 使左衽之區, 爲衣冠之俗, 朝廷文物之盛, 有可觀焉. 然其閭閻之間, 尙道佛不尙儒, 業商賈不業農, 衣服短窄, 男女同制, 飲食腥穢, 尊卑同器, 餘風未殄, 是可恨者. 且其山童, 其川汙, 其地沙土揚起, 塵埃漲天, 五穀不豐, 其間人物之夥, 樓臺之盛市肆之富, 恐不及於蘇杭. 其城中之所需, 皆自南京及蘇杭而來. 朝廷視臣等以漂海夷人, 令把門館夫劉顯等直臣等, 非奉上司明文稟帖呼喚, 不許擅自出館, 亦不許容放, 牙行及無籍之徒, 入館串引交通. 故劉顯嚴加防制, 且無通事, 就與盲聾同類, 故凡朝廷有事, 不得聞而知之.” 崔溥, 국역연행록선집1 《漂海錄》 卷之三 4月 23日, 서울: 민족문화추진회(1976: 198-199).

7) “提督李其紀, 與主客司郎中周鏞, 會飲于廓然亭, 館夫等爭相調之曰, ‘清白學士, 對酌可觀.’ 蓋譏其貪墨敗官也, 西館牌子劉紳有殺兄之惡, 被刑部拿去, 館人相賀, 卒以賄免, 惜乎! 中朝政亂, 何其甚歟?” 洪翼漢 著, 鄭芝相 譯, 국역연행록선집2 《朝天航海錄》 第2卷 天啓 5年 乙丑年 2月 12日, 서울: 민족문화추진회(1976: 260).

夏五月	初三日	燕京에	다다르니
皇極殿	높은 집이	太淸門에	소사났다.
天子的	都邑이라	雄壯은	하거니와
人民의	豪奢함과	山川의	秀麗함을
比較하야	불작시면	江南을	짜를소냐. <sup>8)</sup>

비록 높은 皇極殿이 太淸門 위로 솟구쳐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호사스러움과 산천의 수려함은 강남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 지역을 거쳐 북경에 도착한 조선인들에게 있어 북경은 그다지 큰 감동을 주지 못한 것 같다.

### 3.2 江南 이미지

이에 반해 江南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sup>9)</sup> 우선 崔溥의 《漂海錄》은 다음처럼 江南과 江北의 이미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인심과 풍속으로 말하면, 강남은 和順하여, 형제 혹은 堂兄弟와 再從兄弟가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으며, 吳江縣에서 북쪽은 간혹 부자가 따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크게 여겼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繩床과 交椅에 걸터앉아서 일을 하였습니다. 강북은 인심이 強悍하여, 산동에서 북쪽은 한집안이 서로 보호하지 못해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혹은 겁탈하는 도적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해관에서 동쪽은 사람들의 성품과 행실이 더욱 사나워서 오랑캐의 기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강남 사람들은 글 읽는 것으로 직업을 삼으므로, 비록 마을의 어린아이나 津夫와 水夫일지라도 모두 문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그 지방에 이르러 글자를 써서 그들에게 물으니, 무릇 산천의 고적과 토지의 연혁까지도 모두 알아서, 상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강북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까닭으로, 신이 무엇을 물으려고 하면 모두 '나는 글자를 알지 못합니다.'고 하였으니, 곧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강남 사람들은 池沼·河川의 일로 직업을 삼으므로 거룻배에 종다래끼를 싣고, 그물과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때를 지었는데, 강북은 濟寧府의 南旺湖

8) 李邦翼, 〈漂海歌〉.

9) 강남 이미지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金敏鎬의 〈他者の視線으로 바라 본 中國江南 이미지- 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中國語文論叢》第43輯, 中國語文研究會 編, 2009年 12月)를 참고할 것.



등 지역 이외는 물고기 잡는 기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강남의 부녀들은 모두 門庭 밖에 나오지 않고, 혹은 화려한 누각(朱樓)에 올라서 珠簾을 걷고 밖의 것을 바라볼 뿐이며, 길을 다니거나 밖에서 일하는 자가 없었는데, 강북은 밭 매는 일이나 노 젓는 일들을 모두 부녀자들이 하였습니다. 徐州와 臨淸 같은 지방의 부녀들은 화려한 단장을 하고 자신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또 강남 사람은 관원이라 칭하는 자도 혹은 몸소 일을 하기도 하고, 卒徒가 된 자도 胡床에 걸터앉기도 하였으며, 冠帶에는 무늬가 없고 尊卑에는 위차가 없었으니, 전혀 예절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官衙에 있으면 威儀가 整肅하고, 軍中에 있으면 호령이 嚴切하고, 隊伍가 바르며 차례를 따르고 감히 시끄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호령이 내릴 때에, 한번 징 치는 소리를 들으면 원근에서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뒤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북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山東에서 북쪽은 무릇 호령을 내릴 적엔 회초리로 때리지 않으면 능히 정돈시킬 수 없었습니다.<sup>10)</sup>

인심과 풍속은 “江南이 和順”하고, 또 “비록 마을의 어린아이나 津夫와 水夫일지라도 모두 문자를 알고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崔溥는 “강남 사람들은 글 읽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반해 “강북은 인심이 強悍”하고, “그 사람들의 성품과 행실이 더욱 사나워서 오랑캐의 기풍이 많”았다며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李邦翼 역시 그의 〈漂海歌〉에서도 江南은 산천이 아름답고 변화한 곳이라 읊고 있다.

이 江山	장탄 말을	넷글에	들었더니
萬死餘生	이내 몸이	오늘날	구경하니

10) “人心風俗, 則江南和順, 或兄弟或堂兄弟, 再從兄弟, 有同居一屋. 自吳江縣以北, 間有父子異居者, 人皆非之. 無男女老少, 皆踞繩末交椅, 以事其事. 江北人心強悍, 至山東以北, 一家不相保, 鬪毆之聲, 礮鬧不絕, 或多有劫盜殺人. 山海關以東, 其人性行尤暴悍, 大有胡狄之風. 且江南人以讀書爲業, 雖里閭童稚及津夫水夫, 皆識文字. 臣至其地, 寫以問之, 則凡山川古蹟土地沿革, 皆曉解詳告之. 江北則不學者多, 故臣欲問之, 則皆曰, 我不識字, 就是無識人也. 且江南人業水處, 乘舴舨, 載笮簰, 以篋罩筍取魚者千百爲群. 江北則唯濟寧府南旺湖等處外, 不見捕魚之具. 且江南婦女, 皆不出門庭, 或登朱樓, 捲珠簾以觀望耳, 無行路服役於外. 江北則若治田棹舟等事, 皆自服勞. 至如徐州, 臨淸等地, 華粧自鬻, 要價資生以成風. 且江南人號爲官員者或親執役, 爲卒徒者或踞胡床, 冠帶無章, 尊卑無位, 似若殊無禮節. 然在官衙則威儀整肅, 在軍中則號令嚴切, 正伍循次, 無敢喧囂. 一出令時, 聞一鈴聲, 遠近雲集, 莫或有後. 江北亦然, 但山東以北, 凡出令, 非鞭扑不能整之.” 崔溥, 국역연행록선집1 《漂海錄》 卷之三 〈見聞雜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1976: 234-235).

몸걸인가	참이런가	羽化登仙	아니런가.
西山에	日暮하고	東嶺에	月上하니
烟寺暮鐘	어대메뇨,	金樽美酒	가득하다. <sup>11)</sup>

그는 江南 지역의 山水가 秀麗하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 보니 그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 歌辭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李邦翼의 漂流 상황을 御命을 받고 정리한 朴趾源의 〈書李邦翼事〉에도 杭州로 대표되는 江南 山川의 수려함과 변화함에 대해 찬탄을 금하지 않고 있다.

방익이 아뢰기를, “龍游縣을 지나서 嚴州에 당도하여 子陵臺에 올라보니 臺 곁에 子陵祠가 있었습니다. 杭州府 北關의 大善寺에 이르니 산천의 수려함이라든가 인구의 번성함이라든가 누대의 웅장함이 쉴 새 없이 보아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큰 배가 출렁이는 물결 위에 떠 있어 여러 명의 기녀들이 뱃머리에서 유희를 하고 있었는데 차고 있는 쾌옥 소리가 쟁그랑쟁그랑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sup>12)</sup>

〈書李邦翼事〉에서도 역시 杭州의 “산천의 수려함이라든가 인구의 번성함이라든가 누대의 웅장함이 쉴 새 없이 보아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라며 江南 山水와 그 도시의 변화함에 대해 찬탄을 하고 있다. 심지어 李邦翼은 그의 〈漂海歌〉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禮部로	드러가서	速速 治送	바라더니
皇帝께	알윈 後에	朝鮮館에	머물나네.
이 아니	반가온가	절하고	나와 보니
鋪陳飲食	接待諸節	아모리	極盡하나
江南에	比較하면	十倍나	못하고나. <sup>13)</sup>

비록 北京에 있을 때 음식이 다양하게 차려져 있고, 또 접대하는 것 역시 극진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강남과 비교를 하면 그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며 北京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강남 이미지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이미지는

11) 李邦翼, 〈漂海歌〉.

12) “邦翼奏曰, 過龍游縣, 到嚴州, 登子陵臺, 臺傍有子陵祠. 至杭州府北關大善寺, 山川之秀麗, 人物之繁庶, 樓臺之侈壯, 目不暇給, 大船縹緲, 妓女數輩, 遊戲船頭, 環珮琅然.” 朴趾源著, 辛호열, 김명호 譯, 《燕巖集》下 卷6 〈書李邦翼事〉, 서울: 민족문화추진회(2007: 29).

13) 李邦翼, 〈漂海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大屯寺의 千佛 조성을 위해 慶州 佛石山에서 조각한 불상을 싣고 오다가 일본으로 표류한 楓溪 賢正의 《日本漂海錄》(1821)에도 역시 강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西京을 최고의 변화가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 같은 모르겠지만 몇 단계 정도 내려가는 것 같고, 襄陽의 大堤와 江南의 杭州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sup>14)</sup>

위 상황은 日本 長崎의 변화함을 언급하면서 나온 표현으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중국을 가보지 않은 저자가 항주 같은 강남 도시에 대해 화려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위한의 《최척전》에도 강남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최척전》은 南原-燕谷-紹興(瀟湘, 洞庭湖, 岳陽, 姑蘇) — 帶(四川 青城山) — 安南-杭州-遼陽-福建, 廣州-琉球-恩津-南原 등 조선, 중국, 안남, 유구, 일본까지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중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은 紹興, 洞庭湖, 蘇州, 杭州 등인데 최척은 이곳들을 유람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북쪽인 遼陽을 “이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此去遼陽數萬里)” 변방으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유람을 하고 싶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곳 출신의 紅桃는 異域인 조선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여 최척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 효녀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최척과 그의 처는 “여자가 이런 뜻을 가진 다는 것은 대단하다(女而如是, 其志可.)”며 긍정적으로 강남 여성인 흥도를 평가하고 있다.<sup>15)</sup> 다시 말해 강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소설인 《최척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3.3 山東 이미지

조선시대 해양관련 기록 속에 나오는 산둥 이미지는 좋지 않다. 우선 崔溥의 《漂海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강북은 인심이 強悍하여, 山東에서 북쪽은 한집안이 서로 보호하지 못해 싸움 소

14) “我國西京最稱繁華, 而比之於此, 不和(知)其落下幾層, 若襄陽之大堤, 江南之杭州, 庶或似之耶.” 楓溪 賢正(2010: 56).

15) 《崔陟傳》(林明德 主編, 《韓國漢文小說全集》卷七 愛情家庭類,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69年: 276-277).

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혹은 겁탈하는 도적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  
다.<sup>16)</sup>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다. 《耽羅聞見錄》第3話 1729年 衙前 宋完  
의 〈臺灣漂流記〉에도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오고 있다.

산동 땅으로 접어들자 평야가 수천 리 인데, 답이나 누각 하나 없이 모두 밭이었  
다. 마을은 쓸쓸하여 강남의 풍부함에는 크게 못 미쳤다.<sup>17)</sup>

강남의 화려함을 보고 난 후긴 하겠지만 그래도 산동에 대한 묘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  
다. 李邦翼 역시 그의 〈漂海歌〉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江南을	離別하고	山東省	드러오니
平原曠野	뵈는 穀食	黍稷稻粟	썩이로다.
柴草는	極貴하야	수수대를	불 사이고
男女의	衣服들은	다 찢러진	羊皮로다.
지저귀며	往來하니	그 形狀	鬼神 갖다.
豆腐로 썩	수수 煎餅	猪油로	부쳤스니
아모리	饑腸인들	참아 엇지	먹을소냐.
죽은 사람	入棺하야	길 가에	버렸스니
그 棺이	다 찢은 後	白骨이	허여진다.
夷狄의	風俗이나	참아 못	보리로다. <sup>18)</sup>

山東 지역은 뿔나무가 아주 귀하어 옥수수대로 불을 지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못 먹  
어 모습이 귀신 같이 생겼으며, 돼지기름으로 지진 수수전병 밖에 없어 배가 고팠지만 목으  
로 넘길 수 없었다며 산동 지역의 빈한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방익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뿐 아니라 그 풍속에 있어서도 사람이 죽어 入棺하면 길옆에 방치한다며  
이런 오랑캐의 풍속은 차마 볼 수가 없다며 문화적으로도 산동 지역이 뒤떨어진다는 이미지

16) “江北人心强悍，至山東以北，一家不相保，鬪毆之聲，礮鬪不絕，或多有劫盜殺人。”崔溥, 국역연행  
록선집1 《漂海錄》卷之三 〈見聞雜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1976: 234).

17) “入山東地界，平野數千里，無一拳培塿，皆旱田，閭落蕭條，大不及江南之富庶。”鄭運經, 《耽羅聞  
見錄》第3話 1729年 衙前 宋完 〈臺灣漂流記〉(2008: 75).

18) 李邦翼, 〈漂海歌〉.

를 갖고 있었다.

### 3.4 臺灣 이미지

조선시대 臺灣의 경우 漂流가 아닌 상황에서는 가 볼 수 없는 곳이었다. 때문에 대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耽羅聞見錄》에 보이는 第3話 1729年 衙前 宋完의 〈臺灣漂流記〉에 나오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제묘에 있을 때 일이다. 대만 사람이 마패 가운데 천계 연호가 있는 것을 보고 다투어 전하여 살펴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大明의 제도가 여기에 남았구나.” 어떤 이는 탄식하면서 마패를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기색이 말과 얼굴에 드러났다.<sup>19)</sup>

위의 글을 통해 宋完은 臺灣 사람들 역시 朝鮮처럼 淸朝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明朝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心情的으로 臺灣 사람들에게 同質感을 느꼈던 것이다. 李邦翼의 〈漂海歌〉에도 臺灣의 이미지를 그린 표현들이 나온다.

風勢는	和順하고	日色은	明朗하니
臺灣府가	어대매노.	五日만에	다닷거라.
船艙	左右에는	丹青한	漁艇이요
長江	上下에는	無數한	商船이라.
鐘鼓와	笙歌 소리	곳곳이서	밤 새오니
四月 八日	觀燈인들	이갓홀길	잇슬소냐. <sup>20)</sup>

더불어 무수히 많은 商船의 묘사를 통해 대만의 부유함을 드러내었고, 종과 북소리,笙 연주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대만의 변화함을 묘사하고 있다. 朴趾源이 정리한 〈書李邦翼事〉에도 臺灣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19) “在上帝廟時，臺灣人見馬牌中天啓季號，爭前觀大喜曰，‘大明制度在此’或咨嗟不肯釋手眷戀者，形諸言容。” 鄭運經, 《耽羅聞見錄》第3話 1729年 衙前 宋完 〈臺灣漂流記〉(2008: 74).

20) 李邦翼, 〈漂海歌〉.

방익이 아뢰기를, “두 척의 큰 배에 나누어 타고 西南으로 향하여 이틀 만에 臺灣府의 北門 밖에서 下陸했는데, 변화하고 장려하여 길 양옆에 누대가 늘어서 있고 밤에는 유리등을 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또 기이한 새를 채색 초롱에 기르고 있는데 그 새는 시간을 알아서 울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sup>21)</sup>

그는 臺灣島가 “변화하고 장려하여 길 양옆에 누대가 늘어서 있고 밤에는 유리등을 켜 대낮처럼 밝았”다며 그 변화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朴趾源은 臺灣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李邦翼의 이야기를 듣고 표류 상황을 정리한 것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들도 보충하였다.

살펴보건대, 대만은 《明史》에 鷄籠山이라 칭하였고 또 東蕃이라 칭했습니다. 永樂 연간에 鄭和가 동서의 大洋을 두루 원정하여 모두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유독 동변만은 멀리 피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이를 미워하여 집마다 하나씩 구리 방울을 주어 그 목에 걸게 하였는데, 이는 대개 狗國에 비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도리어 그 방울을 보배로 여겨, 부자는 여러 개씩을 걸고 다니며 ‘이는 조상이 물려준 것’이라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풍속은 꿩을 먹지 않고 다만 그 털만 취하여 장식품을 만든다 합니다. 건륭 52년(1787)에 林爽文의 난을 토벌하자 임상문의 군사가 패하여 內山으로 들어가니 生蕃들이 포박하여 바쳤는데 熱河의 文廟 大成門 바른편 벽의 碑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번들은 다 키가 왜소하며 단발한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머리카락은 칠흑색이며 양미간이나 턱 위에 八卦 무늬와도 같은 낙인을 찍었으며, 콧바퀴를 뚫어 朱錫 통을 꽂았는데 그 통은 앞뒤가 통하며, 혹은 橫木을 꿰어 骨牌를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投旺, 勻力力, 囉沙懷祝, 也璜哇丹, 懷日懷라 불리는 자들은 일찍이 열하에 入朝한 자들입니다.<sup>22)</sup>

21) “邦翼奏曰, ‘以兩大船分載, 西南向二日, 到臺灣府北門外下陸, 繁華壯麗, 樓臺夾路, 夜張琉璃燈, 通明如晝. 又有異鳥, 馴之彩籠, 知更而鳴.’” 朴趾原著, 신호열, 김명호 譯, 《燕巖集》下 卷6 〈書李邦翼事〉, 서울: 민족문화추진회(2007: 21).

22) “按臺灣, 明史稱鷄籠山, 又稱東蕃. 永樂時, 鄭和歷東西大洋, 靡不獻琛, 獨東蕃遠避, 和惡之, 家貽一銅鈴, 俾掛其項, 蓋擬之狗國也. 其後人反寶之, 富者至綴數枚曰, “此祖宗所遺.” 俗不食雉鷄, 但取其毛以爲飾. 乾隆五十二年, 討林爽文之亂, 爽文兵敗, 入內山, 生蕃等, 縛而獻之. 熱河文廟大成門右壁碑, 記其事. 生蕃等, 皆短小, 剪髮覆額, 髮色漆黑, 眉間或頤上, 印烙若卦文, 穿耳輪, 挿錫筒, 前後通明, 或貫黃木, 懸骨牌. 其名有曰投旺, 曰勻力力, 曰囉沙懷祝, 曰也璜哇丹, 曰懷日懷, 曾入朝熱河者也.” 朴趾原著, 신호열, 김명호 譯, 《燕巖集》下 卷6 〈書李邦翼事〉, 서울: 민족문화추진회(2007: 21-22).

위에서 대만의 변화함에 대해 언급을 하였음에도, 가보지 못한 먼 이방인 대만을 他者化 하여 “狗國”이라는 의미에서 달아 준 “銅鈴”을 “그 후손들은 도리어 그 방울을 보배로 여겨, 부자는 여러 개씩을 걸고 다니며 ‘이는 조상이 물려준 것’이라며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또, “다 키가 왜소하며 단발한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머리카락은 칠흑색이며 양미간이나 턱 위에 八卦 무늬와도 같은 낙인을 찍었으며, 컷바퀴를 뚫어 朱錫 통을 꽂았는데 그 통은 앞뒤가 통하며, 혹은 橫木을 꿰어 骨牌를 달고 다닌”다며 야만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 4. 日本, 琉球 이미지

古代에 일본은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일본을 가게 되는 경우는 조선 통신사의 방문처럼 국가의 공식 방문이거나, 표류를 통한 방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공식 방문을 통해, 琉球는 표류를 통해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 4.1 日本

壬辰倭亂 이전 일본을 다녀온 申叔舟는 成宗의 御命을 받아 《海東諸國記》를 집필한다. 그의 《海東諸國記》에 나오는 일본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을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계를 해야 할 장점도 갖추고 있는 나라로 파악하고 있었다.

삼가 살피건대, 東海 가운데 자리 잡은 나라가 하나뿐이 아니지만 그중에서 일본이 가장 오래되고 또 큰 나라입니다. 그 땅이 黑龍江 북쪽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濟州島 남쪽에까지 이르러서 琉球國과 서로 접경을 이루게 되어 그 지세가 매우 기다랗습니다. 초기에는 각처에서 부락의 집단 체제로 나라를 세웠던 것을 周平王 48년(기원전 772)에 그들의 始祖인 狹野가 군사를 일으켜 쳐부수고 비로소 州郡을 설치했으나 大臣들이 각각 점령하여 통치하다보니 마치 중국의 封建諸侯처럼 되어서, 제대로 統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습성은 강하고 사나우며, 武術에 精練하고 舟楫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들을 만약 도리대

로 잘 어루만져 주면 예절을 차려 朝聘하고, 그렇지 못하면, 문득 함부로 剽掠을 하였던 것입니다. 高麗 말기에 國政이 문란하여 그들을 잘 어루만져 주지 않았더니 그들이 沿海 지역 수천 리 땅을 침범하여 축밭으로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太祖大王께서 奮起하시어, 智異山·東亭·引月驛·兎洞 등지에서 수십 차례 力戰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적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였습니다. 개국한 이후로 역대의 군주들께서 계승하시어 정치를 잘하시니, 나라 안의 정치가 이미 융성하게 되고, 外地도 곧 복종하였으므로, 변방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世祖께서 中興하시어, 數世 동안의 태평을 누리다보니 安逸함이 심한 害毒이 됨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명령을 공경하고 백성의 다스림을 부지런히 하시어, 인재를 가려 뽑아서 모든 정사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廢墜된 것을 진작시키고 기강을 바로잡느라고, 宵衣旰食을 하시면서 정치에 정력을 쓰시니, 治化가 이미 흡족하고 聲教가 먼 곳까지 暢達되어, 萬里의 遠方에서 산길·바닷길을 통하여 來朝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夷狄을 대하는 방법은, 外征에 있지 않고 內治에 있으며, 邊禦에 있지 않고 朝廷에 있으며, 전쟁하는데 있지 않고 기강을 바로잡는 데 있다.” 하였는데, 그 말을 이제야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sup>23)</sup>

신숙주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夷狄”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습성은 강하고 사나우며, 武術에 精練하고 舟楫에 익숙하다”며 “그들을 만약 도리대로 잘 어루만져 주면 예절을 차려 朝聘하고, 그렇지 못하면, 문득 함부로 剽掠을” 한다며 도리에 맞게 그들을 대할 것을 권하고 있다.

丁酉再亂 때 일본에게 잡혀가 갓은 고초를 겪은 후 귀국한 姜沆은 《看羊錄》을 지어 일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3) “竊觀，國於東海之中者非一，而日本最久且大。其地始於黑龍江之北，至于我濟州之南，與琉球相接，其勢甚長。厥初，處處保聚，各自爲國，周平王四十八年，其始祖狹野起兵誅討，始置州郡。大臣各占主治，猶中國之封建，不甚統屬。習性强悍，精於劍槊，慣於舟楫，與我隔海相望，撫之得其道，則朝聘以禮，失其道，則輒肆剽竊。前朝之季，國亂政紊，撫之失道，遂爲邊患沿海數千里之地，廢爲榛莽。我太祖奮起，如智異，東亭，引月，兎洞力戰數十，然後賊不得肆。開國以來，列聖相承政清事理，內治既隆，外服即序，邊氓安堵。世祖中興，值數世之昇平，慮宴安之鳩毒。敬天勤民，甄拔人才，與共庶政，振舉廢墜，修明紀綱，宵衣旰食，勵精圖理，治化既洽，聲教遠暢，萬里梯航，無遠不在。臣嘗聞，待夷狄之道，不在乎外攘，而在乎內修。不在乎邊禦，而在乎朝廷，不在乎兵革，而在乎紀綱。其於是乎驗矣。” 申叔舟等著，국역해행총재1《奉使日本作詩·海東諸國記·海槎錄·海游錄》〈序〉(1974: 61-63).



食邑을 가진 사람이 또한 그 토지를 나누어 部曲의 공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부곡은 또 그 토지의 소출을 가지고 精銳하고 勇力있는 사람을 모아 양성합니다. 칼 쓰기를 배운 자, 砲를 잘 쏘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수영을 잘하는 자, 軍法을 잘 아는 자, 달리기를 잘하는 자 등, 조금이라도 한 가지 기예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망라하여 받아들임으로, 큰 州의 守는 그 수효가 몇 만 명으로 계산되고 작은 州의 수는 몇 천 명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공격전이 벌어지면 적피는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고, 여러 장수는 부곡에게 명령하고, 부곡은 家丁에게 명령하여 伍·兩이 군사를 거느리게 되어 있으므로, 精兵·健卒이 좌우에 있는 것만 하여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은 1년 동안 농사에 전력하여 그 糧道를 공급합니다. 한 장수의 부하는 한 장수의 士卒이 되므로, 급작스럽게 징발하는 노고가 없고, 한 州의 창고는 한 州의 군량을 공급하므로 군량이 결핍될 염려가 없으니, 이는 비록 夷狄부락의 상태이지만 그 部伍가 항상 일정하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면 공이 있는 것입니다.<sup>24)</sup>

이처럼 姜沆은 “비록 夷狄부락의 상태이지만 그 部伍가 항상 일정하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면 공이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朝鮮通信使의 일원, 혹은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초 위에 조선통신사 기록, 혹은 일본 표해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분류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 4.1.1 풍요롭고 화려한 일본 사회

일본의 풍요롭고 변화함에 대해서는 표해록, 조선통신사 기록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金顯門의 《東槎錄》(1711)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24) “食土者又分其土, 以許部曲之有功者, 部曲又以其土之毛, 收養精銳勇力者, 學劍者, 放砲者, 引弓者, 善水者, 通曉軍法者, 急走者, 稍有一藝一能者, 並羅而致之. 大州之守則其數以累萬計, 小者以累千計, 一有攻戰, 則賊魁令諸帥, 諸帥令部曲, 部曲令家丁, 伍兩率旅精兵健卒, 取之左右而有餘. 其農民終歲緣南畝, 以給其糧道. 一將之部下, 爲一將之士卒, 而無倉卒徵發之勞. 一州之倉庫, 給一州之軍餉, 而無兵糧匱乏之患. 是雖夷狄部落之常態, 其伍部常定, 訓練有素, 故動輒有功.” 姜沆 等著, 국역해행총개2 《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賊中奉疎〉〈倭國八道六十六州圖〉(1974: 128).

날이 저물 무렵 봉행 등이 와서 육지에 내리기를 청하여, 내려서 아미타사에 머물렀다. 새로 숙소를 지었는데 몇 백 칸이 되는지 모를 정도이며, 그 장막도 매우 화려하고 넉넉하였다. ……숙소에 돌아오니 또 숙공, 화기, 칠한 쟁반을 바쳤는데, 극히 사치하고 화려하였다.<sup>25)</sup>

이는 使臣團이 8월 29일 赤間關에 도착하였을 때의 상황인데 일본의 화려함과 여유 있음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일본의 화려함과 넉넉함에 대한 묘사는 金顯門의 《東槎錄》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19세기의 기록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楓溪 賢正도 그의 《日本漂海錄》에서 일본의 부유함과 변화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곳 本島는 중국 물건과 남쪽 오랑캐 물건, 그리고 왜국의 금은 등을 유통하고 교역하는 곳이므로 매우 부유하고 변화하여 다른 島와 비교할 바가 못 되었다. 그런데 본도가 이러하다면 大坂城을 짐작할 수 있으며 倭國이 매우 부유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본도의 인구나 호수가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 계산해 보면 거의 1만여 호를 넘는 것 같다. 매일같이 시장은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운 모습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비록 '소매를 치켜들면 휘장이 되고 땀방울 뿌리면 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말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갑의 가게에는 금은 주옥이 찬란하게 빛났으며, 을의 가게에는 금으로 수놓은 비단이 향기를 무성하게 날리고 있었다. 술집과 떡 가게가 동쪽과 서쪽 여기저기에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는 (너무 흔해서) 값을 거의 따지지 않았으며, 채소는 겨울인데도 봄인 것처럼 시장에 있었다.<sup>26)</sup>

이처럼 그는 변화하고 부유한 일본을 그리고 있다.

#### 4.1.2 법 및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일본 사회

법 및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일본도 조선통신사를 비롯한 일본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25) “日暮時，奉行等來請下陸，下接於阿彌陀寺。新(井+刃)館宇，不知其幾百間，供帳亦甚華侈。……故于館所，又程熟供畫器漆盤，極奢華。” 金顯門，《東槎錄》(1711)，8月 29日(2007: 113)。

26) “本島即唐貨蠻貨倭國金銀物貨灌輸交易之所故，其殷富繁華，不如他島比，而本島如此，則大坂城可以推知，倭國之殷富，又可以推知也。本島人戶多少，雖不知，而略緝計之，則似過萬餘戶。每日市上，擾擾紛紛，不見涯畔，雖舉袂成帷，揮汗成雨，未爲過也。甲肆則金銀珠玉，光彩耀燦，乙肆則錦繡綾羅，香飛芬鬱，酒家餅市，東西錯落魚鱉，殆不論錢，菜蔬雖冬，若春遊間。” 楓溪 賢正，《日本漂海錄》(2010: 55-56)。

일반적으로 느끼는 상황이었다. 1711년 朝鮮通信使의 통역으로 따라갔던 金顯門은 그의 《東槎錄》(1711) 곳곳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숙소는 선창에서 약 5리쯤 되었는데, 좌우의 집들이 넓고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길을 매우 구경하는 남녀노소가 마치 담처럼 죽 늘어서 있었으나 조금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으니, 그 나라의 법이 엄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sup>27)</sup>

7월 19일 부중에 머물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길을 매우 구경하는 남녀노소가 마치 담처럼 죽 늘어서 있었으나 조금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으며 일본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며 그 원인으로 법률 집행의 엄정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상황은 1719년 朝鮮通信使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申維翰의 《海遊錄》에도 나와 있다.

그 풍속이 본래 등급이 없어서, 가옥·가마·말·의복·기물은 참람되어 規制가 없으며, 명분이 한 번 정해지면 위아래의 차별이 엄하여 공경하며 두려워하여 준행하고 받드는 것이 감히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신 행차의 왕래하는 길에 보면 접대하는 諸官으로, 태수·봉행 이하가 못나고 잔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자가 있는데 그 부하들이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영금영금 기어 다니면서 명령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尺寸도 잃지 아니하고, 칼을 차고 문을 지킬 때에는 문안에 오뚝하게 서서 밤새도록 나태함이 없고, 茶를 끓여서 올리려고 할 때에는 화로를 끼고 숯불을 피우며 잠간도 떠나지 아니하며, 무릇 부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응답하기를 메아리처럼 하여 매질을 할 필요가 없이 일마다 잘 처리되고, 길을 끼고 관광하는 자는 모두 正路 밖에 앉되, 작은 사람은 앞에 있고, 조금 큰 사람은 제이의 옆이 되고, 더 큰 사람은 뒤에 있어 차례로 隊列이 되어 엄숙하고 정돈되어 떠들지 아니하여 수천 리의 보는 바에 한 사람도 망동하여 길을 범하는 자가 없었다. 대개 인심과 습속이 모두 孫武와 穰苴의 군사와 같은 것이요, 예법과 교화로써 갖추게 된 것이 아니었다. 관백과 각 주 태수의 정치가 한결같이 軍制에서 나왔으므로 大小의 백성이 보고 익혀서 한결같이 군법과 같이 된 것이다.<sup>28)</sup>

27) “自船滄若五里有餘，左右閭舍宏麗，人物繁盛，老少男女之挾道觀光者如堵，少無喧譁紛鬧，其國法禁之尙嚴，此可見矣。” 金顯門，《東槎錄》(1711)，7月 19日(2007: 87)。

28) “其俗本無等威，宮室輿馬衣服器物，則僭踰無制，而但名分一定，則上下截然，敬畏遵奉，不敢怠

申維翰 역시 질서정연한 일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길을 끼고 관광하는 자는 모두 正路 밖에 앉되, 작은 사람은 앞에 있고, 조금 큰 사람은 제이의 열이 되고, 더 큰 사람은 뒤에 있어 차례로 隊列이 되어 엄숙하고 정돈되어 떠들지 아니하여 수천 리의 보는 바에 한 사람도 망동하여 길을 범하는 자가 없었다”며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질서 유지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예법과 교화로써 갖추게”된 것이 아니라 “모두 孫武와 穰苴의 군사”처럼 군대식 억압으로, 즉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질서정연함은 通信使들의 기록 곳곳에 보이고, 또 통신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 4.1.3 공예 및 실용적인 기술에 뛰어난 일본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높이 치지 않았지만 일본의 공예품이나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金顯門은 그의 《東槎錄》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사람들의 기예에 감탄하고 있다.

새벽에 숙소의 뜰에서 망꺠레를 행하였다. 어제 저녁 내가 지대, 봉행 등에게 말하기를, “지금 비와 눈이 이같이 크게 쏟아지는데 내일 새벽에도 개지 않으면 초하루 망꺠레를 못 지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지나서 행하겠습니까?” 하였다니, 봉행 등이 답하기를, “괘넘치 마시고 속히 영을 내리십시오.” 하였다. 그러므로 사상께 들어가 고하고 예에 따라 영을 내렸다. 오늘 새벽에 이르러 보니 뜰에 거의 100 칸에 이르는 판옥을 만들었는데 그 반듯하고 정모함이 낮에 만드는 것보다 배가 되니, 이 나라의 기예 수준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sup>29)</sup>

忽、使行往來之路，見支持諸官，太守奉行以下，多有庸孱癡騃，不省人事者，而其徒不敢仰視，匍匐而行，聽令承使，不失尺寸，帶劍而司門，則兀坐門內，達夜無倦，設茶而待，進則擲爐燕炭，頃刻不離，凡有所呼，應之如響，不用笞扑，隨事皆辦。夾路觀光者，悉坐正路之外，小者居前，稍大者爲第二行，又其大者在後，次次爲隊，肅整無譁，數千里所見，無一人妄動犯路，蓋其人心俗習，皆如孫武穰苴之軍，此非有禮教而齊之也。國君與各州太守之政，一出於兵制，而大小民庶，所見而習之者，一如軍法。” 姜沆 等著，국역해행총재2 《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海遊錄》下〈聞見雜錄〉(1974: 57-58).

- 29) “曉行望闕禮於館所庭除。昨夕余言於支持奉行等曰，‘今此雨雪，如是大注，明曉若不霽晴，則朔日望闕之禮，何以過行耶?’ 奉行等答曰，‘須勿掛念，速爲出令。’云。故入白於使相前，依例出令矣。及到今曉見之，則庭除大構板屋，近百間而其方正精妙，有倍於日成，可知其國器具也。” 金顯門，《東槎錄》(1711), 12月 1日(2007: 186-187).

12월 1일 望闕禮를 지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자 눈, 비를 피하기 위해 하룻밤 만에 100 칸에 이르는 건물을 만드는 상황을 그린 것으로 밤에도 정확하고, 빠르게 집을 짓는 것을 보고 이들의 기술에 대해 찬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申維翰 역시 그의 《海遊錄》에서 일본의 기예에 찬탄을 보내면서도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풍속이 技巧를 숭상하여 女工은 비단과 베를 짜는 것이 정밀하고 가늘며, 온갖 물건이 가볍고 묘하여 두어 치의 그릇으로 능히 常用하는 모든 기구를 담아서 품속에 넣을 수가 있고, 花草 같은 식물에 이르러서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없고, 반드시 가지와 잎을 찢거나 오므려서 교묘하게 모양을 만들어 독(蠶)과 같게 하고, 일산과 같게 하고 여러 층의 탑과 같이 하며 나무는 용이 서린 듯하며 봉이 나는 것과 같고 풀은 모란 상(床)과 둥근 독과 같은 모든 형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놀래며 웃게 하고, 造花가 꼭 참꽃과 같아서 참인지 만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 대개 그 천성이 교묘하고 조작하여 진실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다.<sup>30)</sup>

그 역시 일본의 기술이 뛰어나 “造花가 꼭 참꽃과 같아서 참인지 만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개 그 천성이 교묘하고 조작하여 진실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 4.1.4 청결함이 생활화된 일본

일본을 대표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청결함이다. 청결함에 대한 것은 통신사 기록이나 포해록이나 공통적으로 다 보이고 있다. 그 중 申維翰의 《海遊錄》에 나오는 구절을 한 번 보도록 하겠다.

여름날 더울 때에도 파리와 모기가 매우 드므니, 이것은 방 안이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고, 魚肉의 부패한 것은 곧 땅에 묻고, 측간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곧 밖으로 옮기므로 파리나 모기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모기가 한 번 생기면 푸른 실로 方帳을 만들어 네 귀의 나무에 걸었는데, 그 높이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만하게 하고 한 사람의 잠자는 것을 용납할 만하였다. 俗에 측간을 雪隱이

30) “俗尙技巧, 女工絹布之屬, 皆極精細, 而百物輕妙, 有以數寸之器, 能貯日用凡具, 而入之懷中, 至於花卉植物, 一無任其天生者, 必以枝葉舒縮, 巧作模擬, 若蠶, 若蓋, 若累層浮圖, 木之爲蚰盤鳳, 草之爲方床圓瓮諸狀, 令人駭笑, 假花之逼真者, 亦不辨眞贋, 蓋其天性巧僞, 不由眞實如此.” 姜沆 等著, 국역해행총재2 《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海遊錄》下〈聞見雜錄〉(1974: 62).

라 하고, 설은의 옆에는 반드시 浴室이 있고 욕실 가운데는 큰 통을 두어 물을 저장하고, 옆에는 한 상이 있고, 상 위에는 흰 紵布 두어 자를 두었다. 그 풍속이 측간에 간 다음에는 반드시 씻으므로 물통이 있고, 상이 있고, 수건이 있다. 남녀가 갇히는 방에도 또한 이것을 설치하였다 한다.<sup>31)</sup>

파리, 모기가 없을 정도로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일본 사람들의 청결함에 대해서는 풍계현정의 《일본표해록》 등의 기록에서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거지들도 매우 깔끔하여 그 거실을 보니 그릇들이 정결하였고 게다가 금은전과 곡식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넉넉한 집 같았는데도 오히려 때때로 나와서 구걸하였다.<sup>32)</sup>

심지어는 거지도 깨끗하고, 집에 금은전과 곡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넉넉한 집 같았다며 일본 사람들의 깨끗함과 부유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 4.1.5.性に 관대한 일본

일본을 다녀온 문헌 기록들을 보면 일본인들의 성, 특히 여성의 정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당시 조선은 극도로 폐쇄적인 유교사회였기에 여성의 失節이나 姦淫은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일본의 자유로운 성문화를 접한 조선 사람들은 이에 대해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申維翰은 그의 《海遊錄》(聞見雜錄)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여색은 요염하고 고운 것이 많아서 비록 연지와 분을 바르지 아니하여도 대개 부드럽고 희다. 분을 바르고 화장을 질게 한 자도 살결이 부드럽고 미끈하므로 자연히 본색과 같으니, 눈썹을 그리고 불그스레한 안색, 검은 머리, 花簪에 오색 무늬의 비

31) “夏月暑時，蠅蚋甚稀，此則以室中精潔無汚，魚肉腐敗者，卽埋于土，廁間臭穢者，卽移田畔，蠅蚋無從而化矣。蚊蠹一起，則以青絲苧布爲方帳，罩四方木機，其高可令人起坐，而中可容一人寢臥。俗呼廁曰雪隱，雪隱之旁，必有浴室，浴室中置大桶貯水，旁有一床，床上置白紵布數尺。其俗如廁之後，必洗浴，故有桶有床有巾，男女交合之室，亦設此具云。”姜沆等著，국역해행총재2《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海遊錄》下〈聞見雜錄〉(1974: 47-48).

32) “至於乞人，亦極鮮明，見其居室，則器皿精潔，又有金銀錢穀，在我國，當爲饒戶，猶時時出而乞之。”楓溪賢正，《日本漂海錄》(2010: 57).

단 옷을 입고, 띠로써 허리를 묶고 부채를 안고 선 자를 바라보니 사람 모습이 아닌 것 같았다. 머리에는 동백기름과 같은 香膏를 모두 써서 머리털 빛이 漆과 같았다. 관백 이하 각 주 태수의 妃嬪의 칭호는 반드시 御內室이라 하여 각각 豐娘·泰娘·惠娘·翼娘의 칭호가 있다. 貴家의 여자는 출입할 때면 가마를 타고 관광할 때에는 비단 창에 기대어 주렴을 드리운다. 그 나머지 밖에 있는 자는 혹은 앉거나 설 때에 손에 그림 수건을 가지며,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맑았다.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는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혹은 손으로 부르는 형용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나이 젊은 倭男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뺨을 어루만지면서 서로 좋아하여 사람 많은 데나 넓은 길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sup>33)</sup>

일본 여자들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는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혹은 손으로 부르는 형용을 하기도”하는 상황은 19세기 풍계 현정의 《일본표해록》에 나오는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흥미롭다.

그러나 남녀 구별 없이 본국인 타국인 할 것 없이 함께 섞여 앉아도 조금도 부끄러워함이 없었으니, 그들이 서로 和姦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간통하고자 하였는데, 下賤의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와서 남녀의 성기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농담하는 것이 극도로 심하였다. 들으니, ‘倭女가 우리나라 사람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나라에서 지극히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녀들이 반드시 사사로이 정을 통하고자 한다. 그 사람들은 이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정을 통하면 그 여자가 스스로 관부에 가서 말한다. 관부는 국왕에게 보고하고 출산할 달수를 계산하여 아이를 낳으면 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sup>34)</sup>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일본 여자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나

33) “女色多妖妍怪麗，雖不施脂粉，而大抵細膩皓白。其傅粉濃粧者，亦以肌膚軟澤，自然如本色，卽畫眉紅顏黑髮花簪，着五色紋錦衣，以帶束腰抱扇而立者，望之不似人形。髻用冬柏油香膏諸物，髮光如漆。關白以下各州太守妃嬪之稱，必曰御內室，各有豐娘，泰娘，惠娘，翼娘之號。貴家女子，出入乘輦，觀光則倚綉戶而垂簾。其餘在外者，或坐或立，手持畫幌，言笑琅琅。見我國人，不勝欣慕，或作招邀之狀，或與倭男年少者，按頂無腮，而相悅於稠人廣路，少無愧色。”姜沆等著，국역해행총재2 《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海遊錄》下〈聞見雜錄〉(1974: 92).

34) “然男女無別，毋論本國人他國人，與之雜坐，不少羞愧。其相與和奸，不可言和(知)。尤欲與我國人相奸，下賤女人，則至於稠坐中，以凹凸等語，戲我國人而極矣。蓋聞倭女，通我國人生子，則其國極爲貴重故，倭女必欲通私。其人以此，或得通我國人，則其女自言於其官府，自官轉聞于其國王，計其朔數生子，則自官付料云，未知何故也。”楓溪 賢正，《日本漂海錄》(2010: 54).

라에서 지극히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과 사사로이 정을 통하려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아이가 생기면 “관부는 국왕에게 보고하고 출산할 달수를 계산하여 아이를 낳으면 관에서 돈을” 주기에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아주 기뻐하며 손짓하며 부르는 상황도 발생하였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異物通姦罪” 라는 것이 있어 외국인과 간음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풍계 현정의 《일본표해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돌아 올 때 부산진에 도착하자 관리가 “이번에 표류인 중에서 일본에 들어가 간통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와 정을 통하였는데 그 여자가 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도착했다. 이것이 만약 위의 감영에 보고되면 즉시 異物通姦罪로 다스려질 것이니 만 번 죽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을 어찌 차마 죽일 수 있겠는가. 아래서부터 미봉하여 그 말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스스로 관에 보고한 것이 과연 거짓이 아닐 것이다.<sup>35)</sup>

이처럼 일본에서는 간통을 한 여자가 떳떳하게 관에 간통을 하여 조선 사람의 애를 배었다고 하여 돈을 받는 반면, 조선에서는 ‘異物通姦罪’가 있어 남성이라도 외국인과 통간하면 죄를 물었던 것이다. 申維翰은 그의 《海遊錄》〈聞見雜錄〉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상황도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 男娼의 굶기가 여색보다 배나 되고, 그것을 사랑하여 혹하는 것이 또 여색보다 배나 된다. 국중의 사내아이가 나이 14, 15세 이상으로 용모가 특수하게 아름다운 자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양쪽으로 땅아 늘이고 연지분을 바르고 채색 비단 옷을 입히고, 香麝와 진기한 패물로 꾸며 그 가치가 천금에 해당한다. 관백 이하 富豪와 일반 백성이 다 그것을 사서 데리고 있어 앓으나 누우나 출입할 때에 반드시 딸려서 추행을 실컷 하고 혹은 밖의 사람과 통하면 질투하여 죽인다. 그들의 풍속이 남의 처나 첩을 몰래 통하는 것은 쉬운 일로 알아도 주인 있는 남창에게는 더불어 말도 웃지도 감히 못한다. 우삼동이 저술한 文藁 가운데 귀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묘사한 글에 이르기를, “왼쪽에는 붉은 치마요, 오른쪽에는 어여쁜 총각이다.”라고 한 문구가 있었다. 내가 그 문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른바 어여쁜 총각이란, 소위 남창을 말합니까?”하니, 그렇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귀국의 풍속이 괴

35) “還渡時, 到釜山鎮, 則鎮吏曰, ‘今番漂人, 入日本, 有通姦者故, 自日本國, 以某人與某女相通, 其女告官之意, 移文來到矣. 此若轉報上營, 則異物通姦, 卽是一律, 萬死生還之人, 何忍殺之乎? 自下彌縫拔其語云云. 其女之自言告官, 果爲不虛矣.’” 楓溪 賢正, 《日本漂海錄》(2010: 54-55).



이하다 하겠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본래 천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니, 천하가 동일한 바이나 오히려淫하고惑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어찌陽만 있고陰은 없이 서로 느끼고 좋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우삼동이 웃으며, “學士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하였다. 우삼동과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보면 그 나라 풍속의 迷惑함을 알 수 있겠다.<sup>36)</sup>

당시 친한파로 유명한 雨森東과의 대화에서 男娼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우삼동이 웃으며, ‘學士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申維翰은 “우삼동과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보면 그 나라 풍속의 迷惑함을 알 수 있겠다”라며 일본의 성풍속에 대해 개탄을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일본 이미지 외에도 꼼꼼하게 기록을 잘 한다든지, 사납고 흉포하다든지 한 이미지 역시 漂海錄 및 朝鮮通信使 기록 곳곳에서 보인다.

## 4.2 琉球

조선시대 유구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국가였다. 연행이나 표류로 인해 중국에 갔을 때 유구 사신을 마주치는 일도 자주 있었고, 유구까지 표류한 기록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또 濟州島 牧使가 유구국 태자를 살해하였다는 이야기가 民間에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다. 申叔舟는 그의 《海東諸國記》에서 유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1. 부인이 자녀가 없고 남편이 죽으면, 스스로 목을 찢러 남편을 따라 죽는 사람이 10이면 7, 8명은 된다. 왕도 또한 이것을 능히 금지하지 못한다.……
1. 나라의 동남쪽에 수로로 7, 8일을 가면 小琉球國이 있는데, 君長이 없다. 사람은 모두 장대한테 의복의 제도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친족들이 모여 그 고기를 베어 먹고, 그 두개골은 금으로 칠하여 음식 그릇으로 삼는다.<sup>37)</sup>

36) “日本男娼之艷, 倍於女色, 其嬖而惑者, 又倍於女色. 國中兒男年十四五以上, 容姿絕美者, 膩髮爲卍, 面傅脂粉, 被以采錦衣, 香麝珍佩修飾之具, 可值千金. 自國君以下富豪庶人, 皆貨而蓄之, 坐臥出入, 必與相隨, 耽狎無厭, 或有外心, 則妬狠殺人. 其俗以竊人之妻妾爲易事, 而男娼有主者, 則不敢與之言笑. 雨森東所作文藁中, 有敘貴人繁華之物, 曰, ‘左蒨裙而右變卍.’ 余指之曰, ‘此云變卍, 乃所謂男娼乎?’ 曰, ‘然.’ 余曰, ‘貴國之俗, 可謂怪矣. 男女之欲, 本出於天地生生之理, 四海所同, 而猶以淫惑爲戒, 世間豈有獨陽無陰, 而可以相感相悅者乎?’ 東笑曰, ‘學士亦未知其樂耳.’ 如東之輩所言尙然, 國俗之迷惑, 可知也.” 姜沆等著, 國역해행총재2 《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海遊錄》下〈聞見雜錄〉(1974: 94).

위의 인용문을 보면 유구국 여인들은 일본과 달리 절개를 무척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小琉球國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유구에서 물길로 7-8일을 가는 거리로 “사람이 죽으면 친족들이 모여 그 고기를 베어 먹고, 그 두개골은 금으로 칠하여 음식 그릇으로 삼는다”라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7-8일이나 걸려서 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이기에 이런 상상 속의 묘사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 崔溥는 표류를 하여 중국에 갔을 때 北京에서 琉球國 使臣을 만난 적이 있다.

琉球國 사람 陳善·蔡賽 등이 떡과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와서 신과 종자들에게 대접하므로, 신은 그 은혜에 감격했으나 보답할 것이 없으므로 즉시 식량 5승을 덜어서 그에게 주었더니 손을 휘둘러 이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유구국의 사신인 正議大夫 程鵬 등 25인이 공물을 바치는 일로 와서 後館에 寓居해 있었으니, 진선과 채새는 대개 그의 종자들이었습니다.<sup>37)</sup>

이처럼 유구국 사람들은 시종들까지 인정이 있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유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민간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장한철의 《표해록》(1771)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옛날에 유구와 우리나라는 서로 사이 좋게 지냈었지. 그래 유구 사신이 오면 승평관에 배를 정박시켰는데 이는 곧 지금의 전라도 순천부야. 그러나 워낙 海路가 멀고 멀어서 한결같이 통교할 수는 없지만 사신들이 전후해서 오고가고 했지. 유구 사신으로 온 사람은 셋이었는데, 그중 둘은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광해조 신해년간(1611년)에 이르러 유구의 태자가 탄 배가 바람부는 대로 흘러 제주에 닿았는데, 그때 목사가 노략질하러 온 도적이라 속이고는 火攻하여 죽여서는 재화와 보배를 빼앗았지. 이로부터 유구는 우리와 絶和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이러니 그들이 제주 사람들을 본다면, 어찌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겠느냐 말이다” 하니, 모두들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여 흠뻑이 되어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나는 사공에게 지남철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불을 비취주게 하고는 다시 風勢를 살피도록 했다. 그러니

37) “一. 婦無子女而夫死, 則自刎從之者, 十常七八, 王亦不能禁…… 一. 國之東南, 水路七八日程, 有小琉球國, 無君長, 人皆長大, 無衣裳之制. 人死則親族會而割食其肉, 漆其頭廂以金, 爲飲食之器.” 申叔舟 等著, 국역해행총재1 《奉使日本作詩·海東諸國記·海槎錄·海游錄》〈琉球國〉(1974: 171).

38) “琉球國人陳善, 蔡賽等, 盛辦餼饋來饋臣及從者, 臣感其恩, 無以報之, 卽減糧五升以與之, 揮手却之. 時琉球使正議大夫程鵬等二十五人, 以進貢來寓後館, 善與賽, 蓋其從者也.” 崔溥, 국역연행록선집1《漂海錄》卷之三 4月 6日, 서울: 민족문화추진회(1976: 180).

까 사공이 바람의 방향을 짐쳐보더니 대답한다. “이는 바로 서풍입니다. 아마 유구에 닿는 것은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나는 짐짓 크게 기쁜 듯이, “그렇다면 여인국이나 일기도에 닿게 될테지”하니, 선원들도 역시 나를 따라 즐거워하였다.<sup>39)</sup>

이처럼 유구국 태자 살해설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이 유구국으로 표류해 가면 죽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장한철의 《표해록》을 계속 보면 유구국 태자가 아닌 안남 태자가 살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한철은 후에 安南에서 온 상선에 구조를 받았다가 제주 사람인 것이 밝혀져 결국 그 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또 《耽羅聞見錄》第9話 1726年 北浦民 金日男, 夫次雄의 〈琉球國漂流記〉에도 유구국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벼와 곡식이 풍족하여 천민도 굶주리지 않는다. 풍속이 도둑질하지 않는다. 혹은 작은 죄가 있으면 대나무를 쪼개서 작대기를 만든다. 그 형벌은 아프게 하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지는 데 있다. 만약 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인 명부에 이름을 기록한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죄를 범하면, 그 죄상의 가깝고 무거움을 참작해서 곧장 감옥에 가두거나 먼 곳의 섬으로 귀양을 보내고, 죽을 때까지 사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름이 한 번만 죄인 명부에 오르면, 관가에서 비록 형벌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친족들이 모두 내쳐서 사람 숫자에 꼽지 않는다. 본인 또한 숨어 지내니,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나라 법에 잔혹한 형벌이나 무거운 벌이 없어도 백성이 이를 범하지 않는다.<sup>40)</sup>

이처럼 유구는 “벼와 곡식이 풍족하여 천민도 굶주리지 않”고, “풍속이 도둑질하지 않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39) “在昔, 琉球與我國通好, 而琉球使臣玉之, 泊舟昇平館, 乃全羅道順天府也. 海路隔遠, 雖不得頻通使价. 前後琉使之至者三, 其二忘其名也. 逮至光海朝辛亥年間(1611), 琉球太子漂船到濟州. 其時牧使誣以寇邊, 火功殺之, 脫其貨貝, 自此琉球絕和云矣. 彼見濟州人, 則豈無復讐之心乎? 衆皆失色, 罔之攸措. 余授沙工指南鐵, 使之照火更觀風勢, 則沙工占風而答曰, ‘此乃西風也, 似可避琉球也.’ 余佯若大喜曰, ‘然則女人, 一岐可泊矣.’ 衆亦隨余而喜焉.” 張漢喆, 《漂海錄》, 12月 26日 (2006: 41-42).

40) “稻粟饒, 賤民不饑饉, 俗無竊偷. 或有小罪, 剖竹爲杖, 其刑不使痛, 而使羞. 若犯大罪, 必記名于罪籍中. 一人再犯三犯, 則參量其罪狀輕重, 或直置之大辟, 或竄遠島, 終身無赦, 名若一在罪籍, 官雖不施刑, 父母親族, 皆擯斥之, 不齒之人數, 渠亦自廢, 與死無異. 故國法無酷刑重罰, 而民不犯之.” 鄭運經, 《耽羅聞見錄》第9話 1726年 北浦民 金日男, 夫次雄 〈琉球國漂流記〉(2008: 112).

## 5. 其他地域 이미지

조선시대 해양관련 기록에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 일본, 유구 등 국가 외에도 월남,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게 보인다.

### 5.1 越南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표류하여 越南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정운경이 엮은 《耽羅聞見錄》第1話 1687年 朝天館 居民 高尚英의 〈安南漂流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리나라 태자가 일찍이 조선 사람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니 너희에게 보복하여 태자의 원수를 갚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 글을 차례로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목을 놓아 울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부인이 패옥을 쟁그랑대며 안에서 나왔다. 행동거지가 단아하고, 기이한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부인이 글을 써서 보여주며 말했다. “울지마라. 우리나라는 본래 인명을 살해하는 일이 없으니 마음을 놓아라. 머물러면 머물고,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고는 시종에게 우리를 일으켜 눈물을 닦아주게 한 후, 각자 죽 한 그릇을 주어 마시라고 권했다.<sup>41)</sup>

이처럼 越南은 월남 태자 살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건진 제주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굶지 않고 잘 생활하다 귀국을 하게 된다. 또 월남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 소개한다.

땅은 토질이 비옥하고 논이 많았다. 그곳 백성은 남자가 셋이면 여자가 다섯이었고, 날씨가 늘 따뜻해서 소매가 넓은 훌적삼만 입고 바지는 안 입었다. 다만 작은 비단으로 앞뒤를 가렸을 뿐이었다. 머리는 풀어헤친 채 맨발로 다녔다. 남자는 천하

41) “我國太子，曾爲朝鮮人所殺，亦當殺爾等，以報太子讐。’我人等遞觀其辭，皆匍匐放聲號哭。一婦人衣錦衣，揚珮自內而出。舉止端雅，異香馥馥襲人。亦書示曰，‘爾等勿哭，我國本無殺害人命之事，爾等放心。欲留則留，欲還則還，從爾等所願。’使侍人扶起拭淚，各以一鐘饘勸飲。”鄭運經,《耽羅聞見錄》第1話 1687年 朝天館 居民 高尚英〈安南漂流記〉(2008: 51-52).

고 여자가 높았다. 일 년에 누에를 다섯 번 치고, 벼는 3모작을 했다.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여 열고 굶주리는 근심이 없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는 반드시 누각이 있었다. 제도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sup>42)</sup>

위의 인용문처럼 월남은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여 열고 굶주리는 근심이 없”는 살만한 곳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느껴졌다.

張漢喆은 직접 월남까지 표류하지는 않았지만 월남 상선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제주 사람인 것이 밝혀지자 역시 안남 태자 살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저녁 때가 되어서 임준이 글로써 그 까닭을 일러준다. “옛날 탐라왕이 안남 세자를 죽였으므로, 안남 사람들이 상공이 탐라인임을 알고 모두 칼로써 배를 잘라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만방으로 달래서 근근히 그 마음을 돌렸습시다. 그러나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는 옳지 않으니, 상공은 마땅히 이로부터 길을 나누어 가는 곳이 좋겠습니다” 한다. 대저 세상에 전하기는 옛날에 제주 목사가 유구 태자를 죽였다고 하였는데, 실은 유구가 아니라 곧 安南 세자임을 알겠다. 임준 등은 우리 배를 급히 내주며 스물아홉 사람을 갈라 실어 물결 위로 띄워 보내고는 길을 나눠 가버린다. 마치 날 저문 길에서 어미 잃은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sup>43)</sup>

결국 이들은 배에서 쫓겨나 다시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처럼 월남의 이미지는 월남 태자 살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 5.2 和蘭

16-19세기 和蘭은 일본 長崎에 주둔하고 있었고, 또 대만을 식민통치 하기도 하며 활발

42) “其地沃壤多水田. 其民三男五女, 節侯常暖, 恒著單衫廣袖, 不着袴. 惟以尺帛遮前後. 被髮跣足, 而男賤女貴. 一歲五蠶三稻, 衣食自饒, 無凍飢之患. 其勝處則必有樓閣, 制度華侈.” 鄭運經, 《耽羅聞見錄》第1話 1687年 朝天館 居民 高尚英〈安南漂流記〉(2008: 53).

43) “至晚, 林遵書示曰, ‘昔耽羅王殺安南世子, 故安南人知相公爲耽羅人, 皆欲手刃其服, 以報國讐. 俺等萬方勉諭, 僅回其心, 而猶以爲不可與讐人同舟而濟, 相公當自此, 而分路矣.’ 蓋世傳, 在昔, 濟州牧使殺琉球太子云者, 非琉球而安南世子耶. 林遵急發我船, 分載我二十九人, 泛送潮頭, 分路而去了. 殆如日暮中途, 嬰兒失母, 而莫知所向也.” 張漢喆, 《漂海錄》, 1月 5日(2006: 81).

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멜 일행이 1653년 제주도에 표류를 해 조선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정 기간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폐쇄적인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의 존재를 잘 몰랐고, 일본에 가서 서양 사람들을 본 사람들 역시 신기한 괴물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申維翰은 그의 《海遊錄》에서 화란 사람들과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다.

내가 우삼동과 필담을 할 때에 묻기를, “일본이 큰 바다 가운데 있는데 혹 《山海經》에 기록된 괴이한 형상을 가진 이상한 무리들이 경내에 표류되어 온 일이 있는가?” 하니, 우삼동이 말하기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장기로 찾아와 장사하는 이들은 阿蘭陀와 西洋國 사람들인데, 의복과 언어는 비록 같지 않으나 형상은 별로 다른 것이 없고, 단 10여 년 전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배와 행장은 하나도 수습된 것이 없고, 한 남자가 언덕에 닿아 살아났는데 머리털은 긴데 거두지 아니하고 드리워서 이마를 덮었고, 두 다리는 모두 푸른빛인데 무릎에는 슬개골이 없어서 모양이 竹竿 같고, 오곡을 먹지 않고 소금 두어 되를 먹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은 때문에 마침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大荒經》에 玄股國이 있다 하였는데 다리가 청색인 것은 현고라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소금을 먹는다는 글이 없으니, 상고하지 못하겠다.” 하였다.<sup>44)</sup>

여기서 우리는 신유한이 서양 사람들을 《山海經》에 나오는 기이한 괴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서양 사람들과의 교류가 빈번한 일본인 雨森東은 “의복과 언어는 비록 같지 않으나 형상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며 서양사람이나 우리나라 다를 게 없다고 신유한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화란 사람에 대한 언급은 金顯門도 그의 책에서 하고 있다.

아란타인이 오늘 江戶를 향하여 출발한다고 한다. 아란타국에서는 산호, 구슬, 弓角, 무늬 있는 포 등의 물건이 생산되는데, 일본이 長崎島에 숙소를 만들어 해마

44) “余與雨森東筆談時間, ‘日本在大海中, 或有異人異物, 如山海經所記神怪之狀, 漂到境內否?’ 東曰, ‘海外諸國之來賈於長崎者, 阿蘭陀西洋國諸人, 而衣服言語, 不同, 形骸則別無異者. 但十餘年前, 不知何處人, 破船漂沒, 其船及裝物, 無一收拾, 有一夫漂岸得生, 髮長不斂, 垂之覆額, 兩脚皆青色, 膝無蓋骨, 狀若竹竿, 不食五穀, 喫鹽數升, 言語不通, 故終未辨何國人而死.’ 余曰, ‘大荒經, 有玄股之國, 脚下青色, 可謂玄股而但無食鹽之文, 不可考.’” 姜沆等著, 國譯海行總載2《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海遊錄》下〈聞見雜錄〉(1974: 31-32).

다 매매하며,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빈번이 그 두목 4, 5인을 머무르게 한다. 다음 배가 도착한 후에 머무르게 했던 사람을 보내고, 또 새로 온 사람을 머무르게 한다. 해마다 이렇게 하고 또 해마다 서너 사람이 강호에 가서 폐백을 바치는데, 마치 세금을 바치는 것 같이 한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란타는 본래 남쪽 끝의 별종 세상이라고 하는데, 개들의 종족이라 소변을 볼 때 한쪽 발을 들고서 배설한다고 하니 매우 우스운 일이다.<sup>45)</sup>

1월 25일 赤間關에 있을 때의 상황으로 그는 和蘭 사람을 잘 설명하다가 끝 부분에 “개들의 종족이라 소변을 볼 때 한쪽 발을 들고서 배설한다고 하니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하며 그들을 희화화 하고 있다. 이미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류한(1653)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처럼 외국 상황에 무지하였던 것이다. 19세기 들어와서도 서양 사람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진보가 없었다. 풍계 현정은 그의 《일본표해록》에서 다음과 같이 和蘭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阿蘭館에 대해 長崎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란국은 일본의 남쪽에 있는데 백여 년 전에 일본이 가서 정벌하여 항복시켰다고 한다. 이로부터 아란이 조공하였고 그 나라 사람 백여 명이 항상 와서 長崎鎮에 수자리한다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눈이 깊고 붉은 눈동자를 가졌으며 콧마루가 오뚝하였다. 머리카락은 흑은 붉은색, 혹은 황색, 혹은 검은색, 혹은 회색이었고 그 길이는 불과 한 마디밖에 되지 않았으며 더부룩한 곱슬머리여서 마치 개털 같았다. 옷은 검은색으로 볼들인 가죽으로 옷과 바지를 만들어 입었는데, 몸에 딸린 것은 남김없이 위아래에 모두 끈으로 묶었다. 머리 위에 쓴 것은 대광주리 같은 것으로서 黑貢緞을 입혔는데 용모가 흉측하여 마치 원숭이 같았다.<sup>46)</sup>

19세기에도 이처럼 서양에 대해 무지하여 “용모가 흉측하여 마치 원숭이 같”다며 그들을 타자화하고 있다.

- 45) “阿蘭陀人, 今日發向江戶云, 聞阿蘭陀國, 產珊瑚珠貝弓角斑布等物, 日本設館於長崎島, 年年買賣, 而恐或不頻往來, 輒留其頭目四五人, 待後船來到, 送其所留之人, 而又留新來者. 歲以爲常, 又歲歲數三人, 入去江戶, 呈幣, 有若納稅者然. 今次入去者, 亦爲此也. 阿蘭陀, 本是極南別種世云, 狗種放尿之時, 舉一脚以洩之云, 可笑可笑.” 金顯門, 《東槎錄》, 1712年1, 1月 25日(2007: 217).
- 46) “阿蘭館則長崎人言, 阿蘭國在於日本之南, 百餘年前, 日本往征而降之. 自此阿蘭入貢, 其國人百餘名, 常爲來戍於長崎鎮. 其人深目赤瞳, 鼻梁斗起, 頭髮或赤或黃或黑或灰色. 其長不過一寸餘, 拳曲蒙茸, 恰似狗毛. 所着則以黑染皮革, 爲衣爲袴, 貼身無剩, 上下皆以紐結之. 頭上所着, 若竹筐子, 而塗以黑貢緞, 容貌凶怪, 殆若猴獮之類也.” 楓溪 賢正, 《日本漂海錄》(2010: 52).

## 6. 나가며

이 글에서 조선시대 해양 관련 기록 속에 보이는 외국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洪翼漢의 《朝天航海錄》과 같은 海路 燕行錄, 崔溥, 張漢喆 등의 漂海錄, 朝鮮通信使의 기록들, 일본, 대만, 멀리 월남까지 표류한 표류의 기록들을 비롯하여 조위한의 《최척전》 등을 통해 중국, 일본, 유구, 대만, 월남, 화란 등 국가의 이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해양관련 고전 기록에 보이는 北京을 비롯한 長江 이북 지역의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北京은 陸路를 통해 간 수많은 燕行錄에서 화려하고 부유한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강남 지역을 거쳐서 온 漂海錄의 저자들은 北京의 화려함에 대해 큰 감명을 받지 않는다. 화려한 강남을 경험한 그들로서는 북경의 모습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화려함과 변화함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다. 직접 강남과 북경을 비교하며 북경이 강남의 1/10도 안 된다고 평가 절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漂海錄의 저자들은 강남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臺灣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李邦翼의 표류 상황을 御命을 받아 정리한 朴趾源의 《書李邦翼事》에서는 약간은 덜 떨어진, 오랑캐의 이미지로 他者化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朝鮮通信使의 기록과 표해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랑캐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에 일정 정도 얽잡아 보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록에서 그들 사회의 변화함, 청결함, 그리고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며 실용적인 기술 문명이 발달한 긍정적인 사회로 그려지고 있다. 비록 申維翰 같은 문인은 일본의 위계질서가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또 그 기술이 자연을 거스른다면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체계적이고 질서가 잡힌 사회 시스템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유로운 성문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자학적 사고에 갇혀 있던 조선인에게 일본의 성문화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琉球와 越南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표류한 태자를 살해한 사건이 이 두 나라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표류한 琉球 태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張漢喆의 《漂海錄》과 鄭運經이 정리한 《耽羅聞見錄》 第1話 〈安南漂流記〉에는 제주도에서 살해된 자가 安南의 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이 두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和蘭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미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하였다가 13년 넘



게 조선에서 살다 가기도 하였지만 서양은 조선 사람들에게 아직 미지의 세계였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묘사는 《山海經》에 나오는 괴물을 묘사하듯 하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교류의 기록들에 보이는 각 지역 이미지들을 살펴 본 것이다. 향후 이러한 기록들에 보이는 지역 이미지를 심화, 확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參考文獻〉

- 楓溪 賢正, 《日本漂海錄》,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 崔溥 著, 李載浩 譯, 국역연행록선집1 《漂海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 최부 저, 서인범, 주성지 옮김, 《漂海錄》, 서울: 한길사, 2004.
- 洪翼漢 著, 鄭芝相 譯, 국역연행록선집2 《朝天航海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 朴趾源 著, 신호열, 김명호 譯, 《燕巖集》 上中下,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7.
- 鄭運經 지음, 정민 옮김, 《耽羅聞見錄,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서울: 휴머니스트, 2008.
- 申叔舟 等著, 국역해행총재1 《奉使日本作詩·海東諸國記·海槎錄·海游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 신숙주 지음, 신용호외 주해, 《海東諸國記》, 서울: 범우사, 2004.
- 姜沆 等著, 국역해행총재2 《看羊錄·海槎錄·東槎上日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 金顯門, 《東槎錄》, 서울: 혜안, 2007.
- 張漢喆 지음, 정병욱 옮김, 《漂海錄》, 서울: 범우사, 2006.
- 李邦翼, 〈漂海歌〉.
- 朴趾源 著, 李家源 譯, 《熱河日記》 上中下, 서울: 대양서적, 1973.
- 林明德 主編, 《韓國漢文小說全集》 卷七 愛情家庭類,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69年.
- 임기중, 《연행록연구》, 서울: 일지사, 2002.
- 韓日關係史學會 編, 《韓日漂流民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2001.
- 閔泳大, 《趙緯韓과 崔陟傳》,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3.
- 張孝鉉, 〈東亞細亞 漢文小說과 自國語小說의 關係〉 《韓國古典小說史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2002.
- 임기중, 〈水路燕行錄과 水路燕行圖〉 《한국어문학연구》 제43집, 2004. 8.

- 洪性鳩, 〈두 外國人의 눈에 비친 15·16세기의 中國: 崔溥《漂海錄》과 策彦《人明記》의 比較〉《명청사연구》24, 명청사학회, 2005.
- 이경엽,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漁父歌·漂海錄·漁撈謠를 중심으로〉《도서문화》2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2.8.
- 신정호, 〈한중 해양문학 비교 연구 서설 - 試論적 접근〉《도서문화》제40집, 2012. 12.
- 손승철, 박찬기, 〈외교적 관점에서 본 조선통신사, 그 기록의 허와 실〉《한국문학과예술》제2집, 2008. 9.
- 金敏鎬, 〈他者の 視線으로 바라 본 中國 江南 이미지- 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中國語文論叢》第43輯, 中國語文研究會 編, 2009年12月.
- 金敏鎬, 〈燕行錄에 보이는 北京 이미지 연구〉, 《中國語文學誌》第32輯, 中國語文學會 編, 2010年4月.
- 金敏鎬, 〈韓國古小說裏의 中國 -以趙緯韓의《崔陟傳》爲中心〉, 《明清小說研究》第3期 總第105期, 中國江蘇省社會科學院 編, 2012.
- 吳栢鴻 編著, 《你是哪里人》,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3.
- 吳恩培 主編, 《吳文化概論》,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6.
- 劉士林 等著, 《江南文化讀本》,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008.
- 方東來 主編, 《詩文地理》,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4.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http://db.itkc.or.kr>

### 〈中文提要〉

本文考查了朝鮮時期有關海洋記錄中所見的外國形象。通過這些包括像洪翼漢的《朝天航海錄》這種海路燕行錄, 崔溥、張漢喆等的漂海錄, 朝鮮通信使的記錄在內的日本、臺灣、遠到越南的漂流記錄和趙緯韓的小說《崔陟傳》, 大體考查了中國、日本、琉球、臺灣、越南、和蘭等國家的形象。雖然通過陸路去北京的很多燕行錄中把北京的形象描寫得華麗、富有, 但是經過江南地區來到北京的漂海錄的作者們並沒有對北京的華麗有很深的感受。另一方面, 對江南地區卻都異口同聲地稱讚其華麗和繁華的景象。並且臺灣形象也基本上是比較積極的。只是奉御命整理李邦翼的漂流情況的朴趾源的〈書李邦翼事〉中, 稍微有些夷狄的形象, 將臺灣“他者化”了。

日本的形象可以通過朝鮮通信使的記錄和漂海錄來進行考察。基本上, 他們對日本都有些夷

狄的想法，所以一定程度上呈現出一些瞧不起的趨向。然而，幾乎在所有的記錄中都把他們描寫為社會繁華、整潔、位階秩序已經確立、實用性的技術文明發達等這種積極的社會。

對琉球和越南基本上是認為這兩個地方是個富足的社會，殺害了漂流到濟州島的太子的這個事件對兩個國家的形象有著極其深遠的影響。一般認為是殺害了琉球太子，而在張漢詰的《漂海錄》和鄭運經整理的《耽羅聞見錄》第1話〈安南漂流記〉中記錄的是，在濟州島被殺害的是安南的太子。

最後是關於和蘭的形象。對朝鮮人來說西方還是一個未知的世界。由此，對和蘭人的描寫就像描寫《山海經》中出現的怪物一樣，這種情況普遍出現。

关键词: 燕行录, 漂海录, 朝鮮通信使, 朝鮮, 地域, 海洋, 外国, 形象

투고(접수)일	2013년 11월 10일	심사일	2013년 11월 29일
수정일	2013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3일